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 고찰

천경록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연구는 2022년도 광주교육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I. 서론
- II. 자유교육의 전개와 언어교과
- III.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
- IV. 결론

I. 서론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은 실용교육, 직업교육, 전공교육, 전문교육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문교육, 학교교육, 교양교육, 일반교육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자유교육 이론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서양 교육사를 관통하고 있다. 자유교육은 오늘날 초중등 학교교육과 대학의 교양 교육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종건·임병덕, 1998; 최미리, 1997).

우리나라도 개화기에 근대적 학교교육이 시작되었고, 광복 후에 미군정 기를 시작으로 하여 서양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학교교육도 자유 교육 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강영혜, 1990; 김승호, 1997a; 김승호, 1997b; 박재형, 2005). 그러나 초중등 학교교육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자유’를 유표화하지 않고, ‘교육’으로만 쓰인다. 이에 김종건·임병덕(1998: 52)은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가 자유교육인지도 모르고 자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교육의 목적과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유교

육을 도구적, 실용적 교육과 구별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허스트(P. Hirst)는 교과의 가치를 도구적(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본질적) 가치에서 찾았다.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 이론은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유교육 이론에 해당한다(유재봉, 2000; 홍은숙, 2004). 허스트는 지식의 형식으로 ‘수학, 물리학, 인문학, 역사, 종교, 문학과 예술, 철학’을 제시하였다(유재봉, 2000: 148). 이는 얼른 보아도 오늘날 학교교육을 구성하는 교과와 거의 일치한다.

국어교과는 한국에서 개화기 근대적 학교교육이 시작되면서 줄곧 교과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가깝게는 2015 교육과정에도 국어는 7개의 교과(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94: 17-18) 아래로 국어교과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개론서에는 국어교과를 ‘도구교과’로 소개하고 있다. 국어교과가 도구교과라는 것은, 범박하게 말하여 국어(언어)가 의사소통과 학습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가르칠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오늘날의 초중등 학교교육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 자유교육이고, 자유교육의 대표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허스트는 자유교과가 도구적 가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자유교육 이론의 완결판이라고 할 ‘지식의 형식’ 이론에는 문학이 있기는 하지만 언어(국어)가 빠져 있다. 그런데도 국어교과는 학교교육에서 교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즉, 자유교육 이론과 현재의 초중등 학교교육의 교과 구성 사이에는 불합치가 있으며, 국어교과가 그 중심에 있다. 따라서 이 점이 해명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에서 국어교과의 교육과정적 지위를 정당화하려면, 국어교과가 어떤 점에서 자유교육적 본질과 성격을 갖추고 있는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문제는 교육철학적으로 설명하면, 국어교과의 자유주의(개인주의) 이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이념으로 공동체주의(국가주의)를 들 수 있다. 개화기에 국어교과의 시작은 부국강병(富國強兵)이라는 국가주의 이념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동화주의(同化主

義), 건국 후의 반공주의, 민족주의, 산업주의 등으로 전개되었다. 이 관점에서는 국어를 '國語' 곧 national language로 바라본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 주목하는 자유주의 이념에서는 국어를 '언어사용 기능' 곧 'language arts'로 바라본다.¹⁾ 4차 교육과정 시기는 언어사용 기능 교육으로서 국어교과가 이론적으로 성립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수사학이 언어사용 기능 영역의 배경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이후 5차 교육과정 시기에 언어사용 기능 영역이 재차 강조된 후에 오늘에 이르렀다.

II. 자유교육의 전개와 언어교과

여기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서양교육사의 전개 과정에서 자유교육과 관련된 주요 이론가나 이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서 언어교과(국어교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콜레: 자유교육의 목적과 개념

자유교육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유래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²⁾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그리스는 도시국가로 구성되었고, 사회는 자유민과 노예로 이루어져 있었다. 노예들은 기계적이고 실

-
- 1) 이하 본고에서 국어교과는 language arts에 주목한 국어교과를 뜻한다. 서양교육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언어교과'로 지칭한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교과와 같은 외국어교육을 뜻하지는 않는다. national language에 주목한 국어교과의 공동체주의(국가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다루고자 한다.
 - 2) 학계에서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한다.

제적인 일(work)을 담당하였는데 비해, 자유민은 거기서 벗어나서 ‘스콜레(scholē)’라 불리는 활동을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콜레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그의 스승인 플라톤이 사용한 ‘동굴의 비유’를 인용하는 것이 수월해 보인다. 플라톤은 실재(實在: reality), 혹은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 예의 비유를 사용하였다.

죄수들이 동굴에서 등을 출입구 쪽으로 향한 채, 반대편 벽만을 바라보도록 묶여 있는 장면을 상상하자. 불빛에 온갖 것을 비추어 주자. 그러면, 죄수는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의해 앞면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실재라고 생각한다. 죄수는 후에 풀려나서 설사 그림자의 본체를 보더라도 여전히 그림자를 실재라고 생각한다. … 교육은 동굴의 어둠에 익숙해진 인간의 영혼을 실재의 세계로 인도하고, 궁극적 존재(곧 선의 이데아)로 방향을 전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Plato, 연도미상/1997: 448-450).

위의 비유에서는 가시적(可視的)적 세계와 가사유적(可思惟的) 세계가 대비된다. 전자는 실제(實際)의 세계로 감각계(感覺界)이고, 후자는 그 너머에 있는 실재의 세계로 예지계(睿智界)에 해당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고민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이성(理性)을 부여받았고, 그 이성을 통해 실재를 인식할 때, 행복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위의 비유에 따르면, 가시적 활동이 아니라 가사유적 활동을 통해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사유적 활동을 ‘스콜레’라고 불렀다.

스콜레는 글자 그대로 하면 ‘여가(leisure)’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의 학교 ‘공부’에 상당하는 개념이었다.³⁾ 좀 더 정확히는 이성을 사용하여 사물을 관조(觀照: contemplation)하는 활동이었다. 관조는 추론적 사고

3) 잘 알려진 대로 그리스어 스콜레(scholē)는 라틴어 스콜라(schola)를 거쳐 오늘날 학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school’의 어원에 상당한다.

활동과 구별되는 단순 직관에 가깝다. 스콜라주의자들은 추론적 사고 활동을 뜻하는 ‘라티오(ratio)’와 ‘인텔렉투수(intellectus)’를 구별하였는데, 관조는 후자에 가깝다. 관조는 마음과 실재가 일치, 혹은 합일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승호, 1997 ㄱ: 183). 이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이상적(理想的)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상적 마음을 가진 인간을 스콜라주의자들은 ‘카팍스 우니베르시로서의 인간(homo capax universi)’이라고 불렀고, 우리말로는 ‘전인(全人)’으로 번역된다(김승호, 1997 ㄴ: 368). 이는 자유교육의 목적이 되는 인간상에 해당한다.

스콜레가 여가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노예들이 고된 일에 종사하는 시간 동안 자유민은, 오늘날 개념으로, 한가하게 여흥(餘興)을 즐겼다는 뜻은 아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공부’에 해당하는 개념이었다. 모든 자유인에게는 스콜레가 허락되어 있었지만, 모든 자유인이 반드시 행복에 도달한 것은 아닐 것이다. 공부에 재미를 못 느낀 자유민에게 스콜레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천형(天刑)’에 가까웠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민이 하던 스콜레 활동을 ‘자유 학예(arts liberales)’라고 불렀는데, 이는 노예들이 하는 기계적이고 실제적이며 반복적인 일을 뜻하는 ‘실용 학예(art serviles)’와의 대비시키기 위함이었다(김종건·임병덕, 1998: 52).

자유민과 노예의 구분이 사라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의 자유민이 누렸던 스콜레 활동을 학교를 다닐 동안 ‘잠시 누리게’ 된다.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에는 노예가 담당했던, 실제적인 일에 종사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김승호(1997 ㄱ: 191)는 오늘날의 학교의 교과 활동을 일로부터의 강제적인 ‘격리(隔離)’로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파악했고, 인간은 이성을 통해 실재를 포착하여 초월성을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보았다. 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물과 세상의 본질을 관조하는 활동(즉, 스콜레)을 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이때, 무언가 실제적인 일, 반복적인 일, 비본질적인 일에 관련되는 것은 스콜레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스콜레는 되도록 그

러한 일로부터 ‘벗어나야, 혹은 자유로워야’ 했음을 의미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동기에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읽기, 쓰기, 체육, 음악, 미술 등을 상정하였다고(김종건 · 임병덕, 1998: 57) 한다. 읽기와 쓰기 및 미술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르쳐야 하며, 체육은 용기를 증진하기 위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2. 7자유학과: 자유교육 교과의 원형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자유교육은 중세에서 7자유학과(seven liberal arts)로 정립된다. 7자유학과는 실제적, 기술적, 실용적 내용과는 상반되며 인간의 완성, 다면적 지식을 갖추는 교육이었다. 7자유학과는 중세에서 교육의 내용으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전지전능한 신이건 이데아이건 간에 초월적 실재를 탐구하기 위한 기초로 7자유학과가 채택되었다.

7자유학과는 크게 3학(三學: trivium)과 4과(四科: quadrivium)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3학은 문법, 수사학, 변증법(논리학)으로 언어적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었고, 4과는 산수, 기하, 천문, 음악으로 수학적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음악은 화성학(harmony)을 뜻했고, 이는 음악의 수학적 질서를 뜻했다. 중세에서 7자유학과는 신학과 형이상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로 인식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콜레 활동은 자유교육의 목적과 개념을 형성하는 데 그쳤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무엇이 자유교육이고, 무엇은 자유교육이 아닌지에 대한 개념은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발사가 생업을 위한 방편으로 이발을 하면 기계적이고 실용적이어서 일이 되고 말지만, 남는 시간 그 기술을 통해 사회봉사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존재로서 실재를 깨닫게 되면 같은 행위도 자유교육의 개념에 부합하게 된다(김종건 · 임병덕, 1998: 57). 이에 비해 7자유학과는 자유교육의 내용으로서 교과 구분에 대한 원형을 제공하였다.

7자유학과에서 언어적 질서를 가르치는 3학과 수학적 질서를 가르치는 4과는 오늘날의 광역 교과와 유사하다. 이는 다시 언어과(문법, 수사학, 변증법), 수학과(산수, 기하), 과학과(천문), 음악과(음악)라는 교과와 대응시켜 볼 수 있다. 7자유학과가 오늘날 초중등 학교교육의 7~10개 내외의 교과(군)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윤곽은 일치한다.

오늘날 국어교과와 관련을 더 설명해 보면, 문법은 국어과의 문법 영역과 관련되고, 수사학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영역과 관련되며, 변증법(논리학)은 말하기와 쓰기 영역과 주로 관련된다. 다시 말해, 7자유학과의 3학은 오늘날 국어교과의 영역과 대부분 일치하며, 특히 수사학은 언어사용 기능 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7자유학과 내에서도 3학은 4과의 기초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3학 내에서도 수사학이 으뜸이었다(Kimball, 1995: 52; 홍은숙, 2004: 6). 오늘날 국어과의 언어사용 기능 영역의 배경 학문이 수사학이란 점을 고려할 때, 언어교과로서 국어교과는 7자유학과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3. 형식도야: 르네상스 시대, 고전어와 수학의 재음미

르네상스 시기에 들어오면서 중세 시대의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 세계관이 되살아나게 된다. 사람들은 고대와 중세를 지배해 왔던 초월적 실재에 대하여 회의(懷疑)하기 시작하였고, 인간의 이성을 다시 주목하였다. 또한, 지리학과 탐험의 결과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점점 실제적인 것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상공인 계급은 해당 실무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기존의 기득권층은 고전어와 수학 등을 옹호하였다. 뭔가 실용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던 시기에도 전통적 교육 내용인 고전어와 수학의 가치를 옹호하려는 흐름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주창자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훗날 형식도야로 불

려지게 되었다(이홍우, 1998: 357-358, 365). 형식도아(型式陶冶)는 정신도야(精神陶冶)와 유사한 말이며, 실질도아(實質陶冶)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형식도아에서 ‘형식(form)’은 마음을 구성하는 일반적 능력, 예컨대 지각, 기억, 추리, 감정 등을 말한다. 이름이 보여주듯이 이 이론은 ‘형식’의 도야, 즉 일반적 능력의 발달을 강조한다(이은경, 2018). 그리고 고전어, 수학과 같은 전통적 교과를 학습함으로써 일반적 능력이 발달된다고 주장하였다(이달우, 1995: 191). 비록 실무와 실제적인 일에서 기억력, 추리력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실무와 실제적인 내용을 통해 그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고전어와 수학을 통해 가르치는 게 더 좋고, 그렇게 학습된 기억력과 추리력은 실무와 실제적인 일에도 전이(轉移)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 능력심리학은 형식도아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 이론을 뚜렷하게 제안한 이론가는 없었지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이러한 흐름은 형식도아 이론으로 불려졌다.

형식도아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몇 가지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능력은 육체적인 근육처럼 훈련에 의해 단련되어질 수 있고, 교과의 가치는 사회적 맥락에 의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신 기능을 단련할 수 있는 형식을 지니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이달우, 1995: 190). 형식도아 이론에 따라 수학이나 문법은 지력을 도야하는 데, 순수예술은 감정적 능력을 길러주는 데, 도덕이나 종교 등은 의지력을 교육하는 데 적합한 교과로 받아들여졌다(이달우, 1995: 194).

형식도아 이론의 이론적 기반은 능력심리학이었으나 능력심리학이 부정되고, 전이에 대한 드이의 공격이 거세어진 후에 이 이론은 이론으로써의 지위를 많이 상실하였다. 그러나 교과를 배움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유용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핵심역량도 일종의 일반능력을 말한다. 교육자들은 일반역량으로서 핵심역량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학습자 각자의 삶에서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경희(2009: 14)에서는 역량의 자유교육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언어교과와 관련하여 형식도야 이론에서는 고전어와 문법 교육을 강조 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전어를 공부하는 것은 고전어에 대한 풍부한 교양을 기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억력, 추리력, 상상력 등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실질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것과 비교해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4. 허친스의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 : 고전 읽기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경제 제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적 변화가 심하게 나타났다. 교육 사조로 진보주의가 등장하였다. 듀이는 진보주의, 아동중심주의, 생활 적응 교육, 실용주의를 이끌었다. 실용주의(프래그머티즘) 교육 사조에 대응하여 자유교육 진영의 반응은 항존주의로 나타났고, 허친스는 그 중심에 있었다.

허친스는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위대한 저서(The Great Books)’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잘 결합하였다. 항존주의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인간의 이성이고, 인간이면 누구나 이성을 지닌 존재로 간주된다. 교육의 과업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오랫동안 진리로 인정을 받은 고전을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허친스는 고대, 중세를 거쳐 온 ‘위대한 저서’를 발굴하여 자유교육을 지키려고 하였다(손승남, 2013).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은 주로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의 자유교육적 전통 고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30년을 전후하여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미국의 여러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도 교양교육 프로그램으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항존주의 이론과 자유교육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초중등 학교교육에서 고전 읽기 를 중시하는 전통이 나타났다. 애들러(M. J. Adler)⁴⁾는 청소년을 위한 ‘위대한 저서’를 개발하여 이를 교육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을 ‘파이데이아 제안(The Paideia Proposal)’에 담아 발표하기도 했다(손승남, 2013: 455).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국어과 진로선택 과목으로 ‘고전 읽기’ 과목을 설정한 것은 이러한 전통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위대한 저서’에 대한 비판은 여기에 포함된 저서들의 대부분이 유럽 중심, 남성 중심 작가에 의해 쓰였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던적 시각, 다문화 시각에서 보면 ‘위대한 저서’는 특정 지역과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런 반론을 의식해서인지 위대한 저서 목록은 시대와 역사의 변천에 따라 수정 보완될 수 있다거나, 한 저서의 위대성은 그 저서나 산출된 당시의 시대와 사회와 관련지어 해석되어야 한다거나, 독자가 중심이 되어 저서 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고와 문제 해결 방법을 성찰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5.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 자유교육의 교과 이론

근대에 들어오면서 꽁트의 실증철학 등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인문과학에 비해 자연과학이 힘을 얻게 되었다.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고에 유래한 초월적 실재에 대해 회의하던 근대인들은 이제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였다. 전통적인 형이상학(metaphysics)보다는 인식론(epistemology)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그 결과, 존 로크의 경험론에서 보듯이 가시적 세계로서 실제를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4) 모티머 애들러. 그의 저서 『How to Read a Book』은 우리나라에 『독서의 기술』로 번역되어 있다.

교육학에서는 듀이가 전통적인 지식 중심의 교과에 반기를 들고서 아동 중심 교육, 진보주의 교육, 생활 적응 교육을 주창하였다. 실재라는 것은 ‘경험’과 같고, 주관과 객관은 경험의 내부 대립에 지나지 않으며, 진리는 실천 상의 유용함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로써 형식도야 이론이나 ‘위대한 저서’와 같은 자유교육 쪽의 주장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70년대에 피터스와 허스트는 자유교육을 이론적으로 방어하고 체계화하게 된다(유재봉, 2000).

허스트는 고대와 중세로부터 이어져 온 실재에 대한 사유가 소멸한 현대에 있어서 교육은 인간의 마음을 계발해야 하며, 그것은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고, 인류는 7~8개의 ‘지식의 형식’이라는 세상의 ‘총체’를⁵⁾ 이해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실재는 초월적 세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형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 즉 ‘공적 전통’의 양상으로 있을 수 있으며, 마음은 지식을 획득한 결과로 형성되고 발달되는 것이다. 즉, 마음은 지식과 별개일 수 없으며, 지식이 없다는 것은 본격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종건·임병덕, 1998, 64; Hirst, 1969, 150). 그는 이러한 자유교육의 내용을 ‘지식의 형식’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게 된다.

허스트는 지식의 형식으로 ‘수학, 물리학, 인문학, 역사, 종교, 문학과 예술, 철학’을 제시하였다(유재봉, 2000: 148). 지식의 형식에서 제안하는 7~8개의 형식은 오늘날 초중등 학교교육의 교과와 매우 유사하다. 7~8개의 지식의 형식은 서로 분리된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인식하는 인류의 공적 전통에 해당한다. 우리는 7~8개의 지식의 형식을 통해 ‘총체로서 세상’을 이해 할 수 있고, 이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서로 다른 양상화(modification) 해당 한다.

5) 이는 곧 앞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전통에서 ‘실재’라고 불렸던 것의 현대적 표현에 상당한다.

지식의 형식은 인류가 발전시켜 온 사고의 방식을 뜻했고, 선형적으로 정당화된다. 지식의 형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사람들도 ‘지식의 형식’에 의거해서 질문하고 부정해야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며 모순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지식의 형식은 현대에 들어와서 형이상학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고도 교과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이며, 지식의 형식은 인류가 합의한 결과에 해당한다(유승연, 2019: 122).

허스트는 자유교육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교육의 내재적(본질적) 가치로 파악하였다. 교육이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생활에 적응시켜 주는 것이라면, 그 내용이 되는 교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며, 교과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하거나 대체되며, 결국에는 붕괴할 것으로 보았다.

허스트의 이론에서는 교과는 내용으로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형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식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되면 편협한 주지주의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 지식의 형식 이론에서는 언어교과로서 국어교과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만 ‘문학과 예술’로 뮤인 ‘문학(literature)’ 정도가 오늘날의 국어교과의 내용과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언어사용 기능을 설명하는 국어교과와는 거리가 있다.

III.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

1. 자유교육의 철학자적 전통과 국어교과

앞 장에서는 자유교육의 역사적 전개를 주요 이론가나 이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언어교과(국어교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요약해 보면, 고대 시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자유교육의 목적과 개념 제시되었고, 중세시기의 7자유학과는 국어교과의 영역과 잘 대응되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형식을 도야하기 위해 고전어 교육이 권장되었고, 20세기에 들어오면 항존주의자들은 '위대한 저서'를 읽기를 권장하였다. 1970년대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 이론에서는 '지식의 형식' 중에 하나로 '문학'을 포함시켰다. 자유교육의 이론이나 이론에서 오늘날 국어교과의 내용을 어느 정도 결부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국어교과는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적 지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국어교과가 자유교육의 전통과 관련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는 자유교육과 언어교과(국어교과)의 관련성을 부분적으로 밖에 설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더 큰 의문을 남겼다. 그것은 수사학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자유교육의 전통 중에서 수사학은 중세에서 7자유학과 중에 으뜸으로 인정되었는데, 오늘날 왜 주변부로 밀려났는가? 그리고 자유교육 이론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에 왜 수사학은 등장하지 않는가?

Kimball(1995)의 연구는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 시대 자유교육은 플라톤의 철학자적(philosophers) 전통과 이소크라테스의 연설가적(operators) 전통으로 형성되었고, 이 둘은 모두 그리스 시대에 자유교육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였고, 플라톤에 의한 소피스트 공격이 가열 차게 진행되었으며, 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철학자적 전통이 주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소크라테스의 연설가적 전통의 자유교육은 주변으로 밀려났다고 설명한다.

J. Muir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 그것은 허스트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학교를 설립한 것

은 플라톤의 아카데미보다 이소크라테스가 먼저였으며,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에 준하는 것들은 이미 고대 그리스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식의 형식’은 허스트가 스스로 창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허스트는 고대에 있었던 철학의 전통과 교육학의 전통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허스트는 플라톤에 기원을 둔 철학자적 전통만을 ‘지식의 형식’으로 이론화하였고, 이소크라테스의 연설가적 전통을 자유교육에서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유재봉·정철민, 2010; 홍은숙, 2004; Muir, 2013).

허스트는 후기에 오면 교육을 ‘사회적 실제로의 입문’이라고 하여 자신의 ‘지식의 형식’ 이론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유재봉, 2001). 이는 자신이 자유교육의 두 가지 전통 중에 철학자적 전통 중심으로 지식의 형식을 설명하였다는 비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다시 고대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자유교육의 연설가적 전통과 국어교과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당시 그리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페르시아 전쟁으로 개인 간의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고, 소피스트들은 재산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법을 가르치고, 비싼 수강료를 받아 챙겼다. 소피스트의 활동은 수사학으로 분류되었고, 플라톤은 소피스트를 비난하였다. 그런데 플라톤이 왜 그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선분(線分)의 비유’를 소개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 비유는 다음과 같다.

두 부분으로 나뉜 선분을 생각해 보자. 이는 눈에 보이는 부류와 지성에 의해 알 수 있는 부류로 구분된다. 전자는 다시 상(a: 영상, 모상, 그림자)과 실물(b: 동식물 및 일체의 인공물)로 구분된다. 후자는 다시 수학적인 것(c)과 이데아 또는 형상(d)으로 구분된다. 이를 인식하는 인간의 의식 쪽에서 보면, 상에는 상상 및 짐작이, 실물에는 믿음과 신념이, 수학적인 것에는 추론적 사고가, 이데아와 형

상에는 지성에 의한 앎과 인식이 요구된다(Plato, 연도미상/1997: 440-445).⁶⁾

플라톤이 보기에 소피스트들은 위의 선분의 비유에서 ‘실물(b)’을 대상으로 ‘의견’을 주장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신념’에 따른 인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감각적(가시적) 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예지적(가사유적) 단계의 사유 활동에 이르지 못한다(유승연, 2019: 123). 따라서 수사학은 보편적 ‘지식(episteme: 에피스테메)’을 다루는 ‘학문’이 될 수 없으며, 이성을 계발하여 실재를 관조하게 하여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자유교육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이영주·유재봉, 2019: 106). 목적의 측면에서도 소피스트들은 수사학을 이용하여 사익(私益)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당시 대부분의 소피스트들은 플라톤의 비판 대상에 해당하였다. 수사학 옹호론자였던 이소크라테스조차 소피스트를 비판하였다(이영주·유재봉, 2019: 107).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 학교를 세우고, 아테네 젊은이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쳐 왔지만, 자신이 소피스트로 불리는 것을 염려할 정도로 당대의 소피스트와 자신을 구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이 어떤 점에서 소피스트의 수사학과 달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적 삶에서 중요하며, 수사학을 사회적 공익을 실천하고, 올바른 마음을 훈련하는 학문으로 보았다(이영주·유재봉, 2019: 106). 수사학은 상황에 맞는 의견을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개인의 덕성을 개발하는 것에 두었다(이영주·유재봉, 2019: 113).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에서는 ‘독사(doxa), 로고스(logos), 아레테

6) 플라톤은 앞서 소개한 동굴의 비유에서 한낱 그림자에 불과한 상(像)(a)을 ‘실재’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영혼을 진짜 실재인 이데아(d)를 향하도록 전회(轉回)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설명하였다.

(arete)'를 강조하였다. 독사는 의견을 말한다. 플라톤은 '의견'이 에피스테메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신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소피스트들은 '의견'을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에 비해 이소크라테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시의적절함을 가진 올바른' 의견을 강조하였다(이영주·유재봉, 2019: 115). '로고스'는 언어를 말한다. 소피스트들이 설득의 기술에 주목했는데 비해, 이소크라테스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아레테'는 도덕적인 덕 혹은 탁월성을 의미하였다. 소피스트가 수사학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데 비해 이소크라테스는 수사학을 가르쳐서 사람의 덕성을 길러주고 탁월함에 이르도록 하였다.

요약하면, 당시 대다수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은 반박가능한 의견으로 켜변을 일삼았고,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그것도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독사, 로고스, 아레테'로 구성되는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은 상황에 적절한 의견을 정하고, 논리적 말하기를 실천하였고, 덕성의 발현이라는 개인의 발달과 완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은 자유교육의 개념과 부합되고, 오늘날 국어교과에서 다루는 주장과 설득 교육의 핵심과도 상통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균형 있게 수용한다면, 오늘날의 자유교육에 영향을 준 고대 자유교육의 두 개 전통은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한기철(2018)에서는 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에게서 연원한 두 가지 지식과 교육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이 형이상학을 통해 보는 지식(seeing knowledge),⁷⁾ 관조하는 지식, 이론적 지식, 에피스테메(episteme)를 중시하였고 사변적 지식에 치중하였다.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은 전쟁 이후의 혼란한 그리스 사회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지식(doing knowledge), 실제적 지혜, 프라ク시스

7)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조한다는 뜻에 가깝다.

(praxis)를 중시하였다.

이소크라테스가 오늘날 우리의 교육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중세 이후로 교육학적 전통보다는 철학적 전통이 우세하였고, 플라톤에 의한 소피스트 공격이 가열하였으며, 서양철학의 주류가 플라톤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철학자적 자유교육의 전통보다는 이소크라테스의 연설가적 자유교육의 전통이 더 먼저 그리스에 자리잡고 있었고, 중세의 7자유학과까지 이어진 것 또한 역사적 사실이다.

Knowles는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에 대해 “이 분야에서[자유교육] 위대하고 영원한 영향을 미칠 두 명의 철학자[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와 미래는 이소크라테스에게 주어질 것이다(Knowles, 1962: 61; Muir, 2013: 9 재인용).”라고 평가한 바 있다.

홍은숙(2004)에서는 플라톤의 교육과 이소크라테스의 교육을 비교하고 있다. 플라톤의 교육 방안은 귀족정에서 선발을 전제로 한 철인왕(哲人王) 교육에 맞추어져 있다. 플라톤『국가』에는 오늘날 교육과정에 준하는 내용이 나온다. 17~18세에 예비교육으로서 무시케,⁸⁾ 20세까지 체육, 30세까지 산술기하 천문학 화성학을, 30세부터 변증법을, 50세 좋은 것의 형식, ‘그 자체에 대한 공부’를 추구한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된다. 즉 플라톤의 교육 목적은 그가 그런 이상적 국가를 이끌어 갈 위정자(爲政者) 교육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 교육은 민주정을 전제로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아테네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市民) 교육에 맞추어져 있었다(홍은숙, 2004: 7-8).

오늘날의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은 플라톤의 철학보다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과 더 잘 부합된다.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은 기초교육, 보통 교육을 지향하는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국어교과의 역할과 더 잘 연결된다. 이렇게 볼 때, 이소크라테스는 자유교육으로서 국어교과(언어교과)를 배태

8) 무시케는 뮤즈(Muse)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이다. 무시케는 오늘날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胚胎)한 장본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을 통해서 자유교육 이론인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에 수사학이 빠진 문제를 설명할 수 있고, 학교교육 내에서 국어교과의 교육과정적 지위를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당화할 수 있다.

3. 국어교과의 도구교과론에 대한 평가

종래 국어교과의 성격을 두고 도구교과라는 설명이 있어 왔다. 도구교과는 국어교과의 성격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설명으로 사용되어 왔다. 노명완 외(1994: 17-18) 아래로 대다수의 개론서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별의 심 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을 오도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도구교과론은 국어교과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외재적 가치, 본질적 가치보다는 수단적 가치로 국어교과의 성격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국어교과가 도구교과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단적 가치에만 주목하여 설명하면, 국어교과는 자유교과가 아니라 실용교과로 해석될 수 있다. 도구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 기준은 실용성에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과를 어설프게 실용교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국어교과의 교육과정적 위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 있었던 '영어 몰입교육' 논의는 그 사례이다.⁹⁾ 이 관점에 서면, 사회과도 과학과도 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공부할 수 있으며, 그것이 더 실용적이고, 수요자들도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학교교육의 교과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이 자유교육이기 때문에 자유교육 이론에 의해 국어교과를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허스트

9) '일반과목도 영어수업' 교육 현장 논란. 연합뉴스(2008. 1. 22.) 기사 참조.

는 지식의 형식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자유교과는 실제적으로 유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것의 근본 가치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 있는 내재적 가치에 있으며 실용적인 외재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홍은숙, 2004: 4; Hirst, 1971: 506). 따라서 국어교과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한 설명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어교과의 내용을 좁혀서 본다면, 말하기와 듣기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담화의 형식을 가르친다. 그리고 쓰기 영역에서 다루는 개요짜기나 글의 형식, 읽기 영역에서 글 구조 학습도 글의 내용 학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담화나 글의 ‘형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넓혀서 본다면, 국어(언어)는 사고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형식에 해당한다. 언어와 사고는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삼라만상을 표현하고 이해하게 된다. 삼라만상은 인간 사고의 ‘내용’에 해당하며 언어는 그것을 다루는 ‘형식’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고 발달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고는 언어에 의존하게 된다. 국어교과(언어교과)에서 다루는 표현과 이해 활동의 핵심은 언어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며, 그 본질은 삼라만상, 즉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언어 즉 ‘형식’에 있다. 이리 볼 때, 국어교과에서 다루는 언어사용 기능 교육의 핵심은 국어에 의한 표현과 이해의 형식을 교육하는 데 있으며, 이는 국어교과의 내재적(본질적) 가치에 해당한다. 이 점에 주목한다면 국어교과를 ‘형식교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이미 국내의 대표적인 교육학 사전에도 국어과를 형식교과로 설명하고 있다(서울대학교 교육학연구소, 2011: 178). 이 사전에는 환경의 형식을 규정하는 교과를 형식교과(form subjects)로, 환경의 내용을 규정하는 교과를 내용교과(content subjects)로 구분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어과와 수학과는 형식교과로 소개하고, 사회과와 과학과는 내용교과의 예로 설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자유교과의 원형에 해당하는 중세의 7자유학과도 크게는 3학과 4과로 크게 구분되었고, 이는 각각 언어적 질서와 수학적 질서에

대한 탐구였다는 점도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환기될 필요가 있다.

4. 결과로서 자유와 과정에서의 자유

지금까지 자유교육의 전통 속에서 국어교과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민의 스콜레와 노예의 일을 구분하면서 자유교육을 개념화하였다. 자유교육은 출발에서부터 실용교육과 모종의 긴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전자는 실재를, 후자는 실제를 중시 여긴다. 르네상스 이후부터 근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실용교육(실용교과)은 끊임없이 자유교육(자유교과)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오늘날 초중등 학교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해서 전공교육이 의문을 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세기 들어와서 실용주의(프래그머티즘)에 입각한 뉴이의 생활 적용 교육, 아동 중심주의 교육 등도 자유교육의 대척점에서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뉴이는 자유교육의 적인가? 반재익(2005)에서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별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소극적 자유는 ‘…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 자유는 ‘…으로의 자유’를 뜻한다. 전자는 ‘가난’과 같이 싫은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려는’ 자유를 말하며, 후자는 부나 명예와 같이 좋은 것을 ‘희원하는’ 자유를 말한다. 반재익(2005)에서는 이에 비추어, 뉴이는 교육의 과정적(process) 측면에서 아동의 소극적인 자유를 강조하였고, 허스트는 교육의 결과적(product)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유를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뉴이는 자유 교육에서 말하는 지식 교육이 본질에서 멀어져서 편협하고, 무기력한 과편화된 지식 교육으로 전락한 채, 학생에게 주입되는 것을 우려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를 국어교과에 적용하면, 교육자들이 아동이 국어교과를 공부하여 그 결과로 이성의 계발, 마음의 계발, 덕성의 실현, 사고의 계발, 지식의 형식, 표

현과 이해의 형식을 갖추게 하는 것은 자유교육에 부합하며 아동의 ‘적극적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이 국어교과를 공부하는 과정에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와 맞지 않는 내용을 피동적으로 경험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아동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교육 이론으로 국어교과의 성격을 설명하더라도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관심, 흥미 등에 맞는 내용을 제시하고 경험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모순되지는 않는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현대의 학교교육 교육과정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국어교과의 교육과정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학교교육 이론으로 설명되는 자유교육 이론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 국어교과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플라톤에 기원을 둔 자유교육의 철학자적 전통과 이소크라테스에 기원을 둔 자유교육의 연설가적 전통에서 각각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을 확인하였다.

국어교과(언어교과)는 자유교육이 시작된 고대 그리스 이래로 자유교육의 철학적 전통 속에 있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레, 중세의 7자유학과, 근대의 형식도아이론, 20 세기의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 이론으로 발전한 자유교육 이론에서 국어교과와의 관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관련성은 부분적 관련성에 그쳤다.

국어교과의 배경이 되는 수사학은 중세 7자유학과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나 이후 자유교육 이론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 이론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것은 허스트가 고대의 자유교육의 전통 중에서 철학자적 전통만 계승하여 지식의 형식을 체계화하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오늘날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전통은 연설가적 전통의 자유교육을 ‘복원’함으로써 좀 더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이소크라테스는 자유교육의 연설가적 전통을 수립한 인물이었다. 민주정을 전제로 시민교육 차원에서 아테네 청년들에게 언어를 사용하여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덕성을 교육하려고 했던 그의 수사학은 사익을 추구하던 소피스트의 수사학과 목적과 내용 면에서 구별되었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에서 자유교과로서 국어교과의 위치는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소크라테스의 수사학에 기원을 둔 자유교육의 연설가적 전통에 기대어 설명할 수 있다.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교과의 실용성 여부와 관계없이 교과의 내재적(본질적) 가치로 설명하는 게 좋다. 관련하여 종래 국어교과를 의사소통과 학습의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도구교과’로 설명하여 왔었으나 이는 도구적, 실용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본질을 오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내재적 가치를 중시할 때는 ‘형식교과’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국어교과는 학습자에게 표현과 이해라는 언어적 사고의 형식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형식교과이다. 표현과 이해의 형식은 자유교육 이론에서 주장하는 이성의 계발, 실재나 총체의 인식, 마음의 발달, 지식의 형식과 상통한다. 아울러 국어과 교육의 결과로 자유교육의 이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선택이 보장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2022.07.17. 투고되었으며, 2022.08.07. 심사가 시작되어 2022.09.1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영혜(1990), 「공교육제도에서 자유교육의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승호(1997-ㄱ), 「학교의 이념」, 『도덕교육연구』 9, 177-96.
- 김승호(1997-ㄴ), 「교과의 근본이념으로서의 '여기'」, 『교육과정연구』 35(1), 361-380.
- 김종건·임병덕(1998), 「자유교과의 교육과정적 지위」, 『교육과정연구』 16(2), 51-76.
-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94), 『국어과교육론』, 서울: 갑을출판사.
- 박채형(2005), 「교과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자유-쉴러의 '심성교육론'에 나타난 교육과정 이론」, 『초등교육연구』 18(1), 89-108.
- 반재익(2005), 「교육에서 자유의 의미-자유교육과 아동중심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발전연구』 22(1), 5-24.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소경희(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1-20.
- 손승남(2013), 「'위대한 저서(The Great Books)' 프로그램을 토대로 본 우리나라 대학 인문고 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7(4), 449-472.
- 유승연(2019), 「교과의 정당화의 제 유형」, 『도덕교육연구』 31(3), 115-136.
- 유재봉(2000), 「피터스와 허스트의 교육사상 비교- '교육'과 '자유교육'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2(2), 139-156.
- 유재봉(2001), 「허스트의 '사회적 실체에 기반을 둔 교육'-교육내용관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25, 73-89.
- 유재봉·정철민(2010), 「자유교육의 기원에 관한 논쟁 검토-뮤어(J. Muir)의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철학』 47, 109-126.
- 이달우(1995), 「형식도아이론의 교육원리」, 『교육연구』 11, 189-198.
- 이영주·유재봉(2019), 「이소크라테스 수사학의 교육적 의미」, 『교육사상연구』 33(2), 105-124.
- 이은경(2018), 「형식도아이론의 재해석-교육목적으로서의 '일반능력'의 타당성」, 『도덕교육연구』 30(2), 43-65.
- 이홍우(1998), 『교육과정탐구』, (증보판), 서울: 박영사.
- 최미리(1997),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의미」, 『고등교육연구』 9(2), 157-173.
- 한기철(2018), 「두 가지 지식과 두 가지 교육-플라톤과 이소크라테스」, 『교육철학연구』 40(3), 171-200.
- 홍은숙(2004), 「자유교육 전통의 역사적 고찰-자유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교육과정연구』 22(4), 1-25.
- Hirst, P. H. (1969), "The logic of educa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1), 142-158.
- Hirst, P. H. (1971), Liberal education, In L. C. Deighton(Ed.), *The encyclopedia of education*

- cation(Vol. 5), New York, NY: Macmillan.
- Kimball, B. A. (1995), *Orators & Philosophers: A history of the idea of liberal education*,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Knowles, D. (1962), *The evolution of medieval thought*, London: Longman.
- Muir, J. R. (2013), “The history of educational ideas and the credibility of Philosophy of education”,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30(1), 7-26.
- Plato (1997), 『플라톤의 국가』, (개정 증보판), 박종현(역), 서울: 서광사(원서출판 연도미상).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 고찰

천경록

이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국어교과의 교육과정적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자유교육 이론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자유교육은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에 의한 철학자적 전통과 이소크라테스에 의한 연설가적 전통으로 시작하였다. 철학자적 자유교육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콜레, 중세의 7자유학과, 르네상스 시기의 형식도아론, 20세기 ‘위대한 저서’ 프로그램,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 이론으로 발전해 왔다. 이 전통에서도 현재의 국어교과의 자유교육적 모습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이소크라테스에 기원한 연설가적 자유교육 전통은 오늘날 국어교과의 성격과 더 잘 부합하였고, ‘지식의 형식’에서 수사학이 빠진 문제를 설명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어과를 도구교과로 불러 왔으나 교과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유교육의 본질을 고려할 때는 ‘형식교과’로 부르는 것이 좋다. 자유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어 수업의 과정에서 학생의 관심, 흥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핵심어 자유교육, 국어교과, 7자유학과, 수사학, 지식의 형식,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소크라테스, 형식도아, 위대한 저서, 형식교과

ABSTRACT

Revisiting the Korean language Arts as Liberal Education

Cheon Gyeongrok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beral education(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nguage arts(Kla) as LE. Plato-originated philosophical LE evolved into Aristotle's Schole, the Seven Liberal Arts, formal discipline, the "Great Books" of perennialism, and P. Hurst's "forms of knowledge" theory. In this tradition, Kla could partially be confirmed as LE. However Isocrates-originated orators' LE was more aligned with the nature of today's Kla, and the problem of missing rhetoric in the "forms of knowledge" could be explained. Considering the nature of LE that puts emphasis on the immanent value of the subject, Kla should be referred to as a "formal subject" rather than a "tool subject". To realize the ideal of LE, students' interests and choices must be respected in the process of Kla.

KEYWORDS Liberal Education, Korean Language Arts, 7 Liberal Arts, Rhetoric, Forms of Knowledge, Plato, Aristotle, Isocrates, Formal Discipline, Great Books, Form Subject